

덜렁대는 제자, 심각한 스승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개역, 마가복음 8:27~38]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의외로 베드로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니다. 제일 은혜가 안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니다. 다윗을 보면 늘 기가 죽는데 베드로를 보면 때때로 용기를 얻을 때가 참 많았습니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는 늘 잠이 모자랐습니니다. 고3 때도 새벽기도 쫓아 다녔으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바쁘고 교회는 교회대로 빠지지 말아야 했으니 저녁 예배 시간에 잘 졸았습니니다. 그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해서 우리들을 위로해 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얼마나 덜렁대고 있는지 모릅니니다. 일단 있으면 먼저 뛰어나왔다가 사고치는 경우가 베드로에게 제일 많았습니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들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니다. 그런 얘기를 전해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데 있지 않았습니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다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었습니니다. 오늘 무슨 날인데 차들이 이렇게 많을까 싶은데 교회 오는 사람보다 식당에 가서 먹고 노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야 지금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하느냐는 것보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니다. 우리가 가끔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됩니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부인 생일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Happy birthday to you!* 다 해 주었을테고 아들 딸도 선물 하나쯤 하곤 했으니까 뭐 나까지 나서서 생일 축하합니다 할 필요 있겠냐? 케익 하나 사 놓을까 말까?”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많이 했으니까 안되었겠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니다. 부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생일축하 많이 받았으니까 당신은 안 해도 됩니니다.” 이럴까요? “당신은 여기 가서 축하 받고 저기 가서 축하 받고 많이 받았으니 됐잖아?”라는 남편의 말에 부인이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 축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신이 축하를 해야지... 일년내내 괴로울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칭찬을 잔뜩 듣습니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서 부인에게 바가지를 긁히는데 그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칭찬을 들어야 제대로 된 칭찬인가요?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니다.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십시다. 헛말일지라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에게서 말입니니다.

자식들도 가끔 부모에게 이런 헛말을 합니다. 학교에서 수련회나 야영을 가면 꼭 집에 편지를 쓰라고 해

요. 한결같이 집나와 보니까 집이 그렇다, 효자되고 효녀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입니까? 빈말입니까? 편지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건데 막상 쓸려고 하면 그런 말 빼고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으레껏 그렇게 쓰는 거죠. 집에 온 애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누가 시켜서 쓴 거지? 괜히 해 보는 소리지?” 그런 부모는 잘 없어요. 시켜서 썼건 어째서 썼건 자식이 헛말로 했더라도 그런 말 듣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입니다.

“저는 지킬 수 없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입 꼭 다물고 있는 아이들보다는 헛말일지라도 한마디씩 하는 아이들이 더 예쁩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이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헛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이런 일을 잘 할 수 없으니까 꼭 할 수 있는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자신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때로는 빈말이 될 때 되더라도 하나님께 작정도 하고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말에 베드로가 대답을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린 잘 했다고 기억을 하죠. 조금 넓게 보세요. 대답을 잘 했다면 어떻게 바로 뒤이어 ‘사탄아라고 책망을 듣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면 베드로가 뭘 잘 모르고 얼떨결에 말을 했는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얼떨결에 나와서 흠뻑하는 것 그것도 실수로 친 흠뻑이 아닐까 싶어요.

제게 비슷한 기억이 있거든요. 대학 입학해서 첫 친목회 모임에서 소프트 볼을 했는데 실수로 장타가 나 버렸어요. “야, 잘했다” 하고 야단인데 “실수 아이가”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만 나가면 “실수 해라. 실수해라”고 야단법석인데 사실은 4년 동안 한번도 그런 실수를 더 이상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얼결에 실수로 흠뻑친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어서 잘하지도 못하고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못하는 수도 허다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고 이런 작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그런 고백 듣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안 하시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을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리스도란 어떤 일을 하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리스도는 이리이러한 분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다 배우고 “아,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교회 오셨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찌면 뭔지도 모르고 따라왔을 가능성이 더 많죠. 어디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배워가지고 교회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음식이 맛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죠? 먹어보면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어보면 다 압니까? 포항 사람들은 옛날부터 콩잎을 잘 먹었습니다. 장에 삭혀서 찜을 싸 먹기도 하고, 젓갈에 절여서 먹기도 하죠. 서울 친구 하나 내려오더니 “이걸 어떻게 먹어? 소나 먹지” 하더라고요. “야, 이것 얼마나 맛있다고...” 그래도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여름에 콩잎 삭혀서 찜 싸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보여 주겠다고 별렀는데 아직도 못했습니다.

지방따라 음식이 다른데 먹어보면 알 수도 있지만 먹어봐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못 먹는 것 있지요? 전라도 홍어 삭힌 것이 유명한데 저도 아직 근처에 못 가봤습니다. 과연 먹어보면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은 군침이 돌지 몰라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냄새가 독하다던데요? 파라과이에 계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거기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된장국을 끓였답니다. 된장국을 끓여 놓으니까 “아, 구수한 냄새” 하고 군침이 도는데 이웃집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게 어찌된 게 오늘은 화장실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냐?” 하더랍니다. 좀 비슷하지요? 한국 사람이 말하면 얼마나 구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구수한 맛과 화장실 냄새가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구수한 냄새가 아닙니다. 말아봐도 모릅니다. 음식도 먹어보면 압니까? 어떤 음식은 맛을 아는 사람이 먹으면 맛있는데 맛을 모르는 사람이 먹으면 고문입니다.

음악도 어떤 것은 들어보면 좋다 나쁘다 알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음악은 들어본다고 압니까? 들어봐도 모르는 음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사람이 알지, 모르는 사람은 들어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음식을 맛보는 것이나 음악을 듣는 것보다 이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알지만 안 가르쳐 주시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고 들어가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믿고 순종해 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전보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세상이 살만 합니까? 제겐 참 살만한 곳인데,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압니까? 제가 탄 데 가면 별 시세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만 오면 시세가 좀 있습니다. 왜요?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빨리 졸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는 3년 다녀야 될 학교를 4년 다닐 생각이었거든요. 그곳이 워낙 좋은 곳이라서요.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없고 놀 곳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공부만 하고 성경만 보기 참 좋은 곳입니다. 오죽하면 선배들이 절간이라고 했을까요? 참 좋은 곳입니다. 기숙사비나 식대도 아주 싸입니다. 그 생각을 얼마 전에 고쳐 먹고 더 빨리 졸업할 방법이 없어서 3년 만에 졸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중세 1000년을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천년동안에 발달된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천년동안 발달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히 건축 같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암흑의 시대로 있었습니다. 그 유럽이 중세를 벗어나서 지금까지 약 500년이 안됩니다. 그 사이에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온 세상을 다 집어 삼켜 버렸습니다. 천년동안 꿈쩍 안 하던 그 유럽이 어떻게 해서 그 후 400년만에 온 세상을 집어 삼킬 수 있었느냐 원동력이 뭐냐 그걸 누가 연구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해 보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종교개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서구의 문명이 저렇게 발달을 하면서 동양, 서양,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전부 점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가 일해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참 묘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는 게 좋으냐 사는 게 좋으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 곳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여기 그냥 살아 있으면 누구에게 좋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으니까 나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잘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도 좋고 아니면 하나님께로 지금 당장 가도 좋고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고달프고 살맛 안 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일해야 할 나의 사명이 담겨 있는 곳이 이 세상이고, 이 직장이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있는 한 이 일이, 이 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매력적이고 멋있을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실려면 우선 텔레비전 뉴스를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찌다 아버님 방에 들렀다가 함께 뉴스라도 보게 되면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뵙니다마는 우리 아버지는 뉴스 끝날 때까지 그냥 안 계십니다. 계속해서 좀 험한 말을 하지요. “전부 도둑놈!”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이시거든요. 그

옆에서 “아버지 거기다 대고 욕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라고 말해도 그게 안되나 봐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별 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곧 메시아란 말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으면 오랫동안 외국에 갇혀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에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고 예수님이 새 임금이 되면 못해도 장관 한 자리는 한다는 생각으로 따라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역할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장래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을 아는 삶이 결코 그런 비극의 삶은 아닙니다. 좁게 보면 버림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크게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 중에 많이 쓰는 표현이 어린 양입니다. 어떤 어린 양이라고 하죠? 그냥 어린 양도 아니고 앞에 한마디 붙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좋은 대답입니다마는 요한복음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주로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앞에 다섯 자가 더 붙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뭘 할까요? 여러분, 양 자체도 순하다 순한 짐승인데 죽임을 당해 버렸으니까 뭐하겠어요? 그런데도 계시록에 나오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영광과 권귀와 권세가 다 그 죽임 당한 어린 양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양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두려워서 세상의 군왕들이 바위틈에 숨어서는 산들이 무너져서 자기를 덮어 달라고 소리 소리 지릅니다. 뭐가 무서워서요?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서워서요?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주일날 보세요. 조그마한 아이들 뛰어다니고 있죠? 글썽요 어린 양이 저 애들 같지 않을까요? 저 어린 양이 노를 발하고 진노를 품습니다. 두렵습니까? 귀엽죠! 그 조그만 아이가 성을 내고 화를 잔뜩 내고 덤비면요? 더욱 귀엽죠?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진노는 얼마나 무서웠던지 세상의 군왕들과 지도자들이 바위틈에 숨어서 산이 무너져서 자기를 덮어주기를 소리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잡는 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만 듣고는 자기들의 희망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매’, 즉 간청하였다고 합니다. 사극에 흔히 등장하는 표현 ‘그리하시면 아니 되웁니다’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붙들고 간하매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아주 순하게 번역이 되어서 그렇지 실제 느낌은 좀 다릅니다. 여기 ‘간하매’ 하는 말씀과 그 다음 3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할 때 ‘꾸짖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다니요? 이 단어는 어른이 아이들을 아주 무서운 자세로 책망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간이 부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러면 ‘그리하시면 아니 되웁니다’ 이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가령 옛날에 5.16을 일으켰던 박정희 장군이 어느 정도 사회를 평정을 해 놓은 다음에 자기 부하들을 모아 놓고 “자, 우리는 본래 군인이야.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염려하는 군인이었다면 바르게 잡아 놓을 것은 잡아 놓고 다시 군인

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성스럽게 지도자를 따라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어느 놈이 총 빼들고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오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안됩니다.” 하고 총 빼들고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제대로 한번 해 볼 수 있을 거야 하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뽑은 대통령이 최소한 두 명은 되지요? 아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 놓으면 분명히 나라가 되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저 모양이 될까요? 그리고 대통령쯤 되면 과감하게 못하나 싶은 게 참 많죠? 그런데 왜 못할까요?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한번 해 보자 하고 밀고 나가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고 대들면 못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안됩니다 하고 합니다. 어떤 자세로 그랬을까요? 진짜 총 빼들고 달려드는 그런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아이 꾸짖듯이 꾸짖으며 대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하자고 해도 그렇게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말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봅시다 한다고 선뜻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은 오히려 방해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국가나 타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곳이나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것 이렇게 한 번 해 봅시다 할 때에 온 성도들이 밀어주면 나갈 수 있지만 몇 명이 그것 안됩니다 하고 대들면 잘 안됩니다. 쉬운 것 아니에요. 곳곳에 이런 베드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대단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그렇게 단호하게 꾸짖으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꾸짖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이라는 친구들은 품속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민족의 반역자요 마땅히 처단해야 될 사람이다 싶으면 군중 속에서 사람을 찌르고 도망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 열심당이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칼 휘두른 베드로를 보세요. 여차하면 칼을 휘둘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던 상황이 그리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꾸짖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제자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일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일에는 그 만큼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야단을 쳐놓고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어떤 분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고 제자들 외에 다른 무리까지 다 불러모아서 메시아가 어떠해야 할 것임을 말씀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참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좀 더 나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요긴한 게 뭘니까? 사람의 일을 잘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열심이 있어야겠죠. 또 한편으로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뻥이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군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느 사람 밑에 서느냐에 따라서 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빨리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교인수가 줄어드는 교회에 붙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성장하고 교인수가 자꾸 늘어가는 교회에 미리 가 있어야 장로가 빨리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런 계산이 사람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은 이렇게 머리로 잘 써야 되고 줄도 잘 서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머리 쓰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쓰던 말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였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지요?" 하면 "복 받으려고 믿지요" 합니다. 일단은 교회 처음 나올 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받는 복이 정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러나 조금 좁혀서 보면 예수 믿는 길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라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표현 중에도 제일 순한 것이 '예수의 말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자인데 요건 좀 낫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쉬울 것 같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생애 중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핏박이 다가올 성도들에게는 유효하지만 우리에게 별 관계없네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자제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하기 싫지만 예수 때문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 놓을 각오를 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딱 눈감아 주시면, 요게 정말 생애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데 요번 한번만 딱 감아 주시면..." 할 때가 꼭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 유혹을 따라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꿋꿋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성질을 부릴 대로 다 부리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거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먼저 버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바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결국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차이가 날 때에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뜻을 따라가면 그것은 내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줄을 잘 서서 한 건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줄을 잘 서서 성공하면 몇 십년 동안 재미를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 섰다가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 평생동안 힘들게 살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동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삶 때문에 나중에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더 놀라운 행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야가 와서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죽음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므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믿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멋진 자리를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대답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는 답을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좁게 보면 잘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넓게 본다면 그렇게 썩 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제자들은 덜렁대기만 했지 도대체 제대로 아는 게 없는, 어설픈 이들 데 없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쉽게 고쳤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믿고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만한 능력이 있었던 그 분이 이 본문 앞에서 소경 하나를 고칠 때는 침을 뱉어서 귀에다 대고 주문을 외우듯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란스럽게 병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보이느냐?” 다른 때는 말씀 한마디 안 하셔도 눈이 뜨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가지 치료하는 일을 했는데도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보이느냐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 놓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요.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보이느냐?”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보입니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중간해요. 기도를 두 번이나 하셔서 간신히 눈을 완전히 뜨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때만 능력이 좀 떨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고친 유일한 경우인데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사건과 붙여 놓은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경의 어중간한 상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라고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어중간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그 앞에 소경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그 소경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뭔가 분명하지 않은 모습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제법 있지요. 어떨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뭘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떨 때 보면 전혀 믿는 것 같지 않은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다른 성도들을 보아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충성하고 신앙이 좋아 보인다고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가르쳐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정말 멋지고 훌륭한 제자들이었다면 우리에게 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때는 예수님에게 칭찬듣고 돌아서서 책망도 받는 이렇게 어설픈 것 짝이 없는 제자들이었음에도 예수님께선 이 제자들을 훌륭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 모습보다는 먼 훗날에 되어질 그 모습들을 늘 그리며 제자들을 키워 가셨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범죄한 이후로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합시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선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나를 가꾸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문제 많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늘 이끌어 가시면서 끝에 가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바꾸어 놓은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참 고달프고 힘든 일이 많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아픔들을 다 겪으면서 지나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런 아픔, 그런 원망스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자식들을 바라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마음에 싹 드는 일이 잘 없지요. 아! 어째 저 모양일까 싶을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몇십년 전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부모님께 물어보면 좋지요.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서 “내가 재만 할 때 어땠습니까?” 하면 우리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은 “너는 더 했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잘못된 것을 다 잊고 삽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내가 재만 할 때는 재보다 더 했더라는 걸 기억만 해내면 자식 대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은 재가 하는 짓이 서투르고 어설피지만 장차 어떤 애가 될 것인지를 머리 속에 그려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재가 학교에 있을 때 이런 짓을 잘 했어요. 제일 말썽 많고 시끄러운 애를 뭐라고 부를까? 보통 선생님이 그런 애들을 뭐라 부르죠? 좋게 부른 말이 농땡이입니다. “아이고 저...” 좋지 않은 말이라서 생략합니다. 저는 그런 애들을 동창회장감이라고 불렀죠. “애들아! 재 팔세하지 마라. 나중에 너희들 동창회 나가봐라. 재가 회장할 거다. 선생님도 동창회 가보면 학교 다닐 때 말썽만 치고 공부도 안 하던 녀석들이 밥값도 내고 후원비도 내더니 회장하더라.” 현재 하는 짓으로는 칭찬할 게 하도 없으니 장래의 희망

사항을 담아서 동창회장이라고 불렀더니 글썽 사고도 덜 치고 점잖아지더라구요. 학교 다니는 재미가 생기나 봐요. 눈 앞의 현실보다는 먼 훗날의 모습을 그리면 말썽꾸러기도 믿음직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렇게 덜렁대는 제자들의 장래 모습을 그려보며 이들을 훌륭한 사역자로 키워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자신의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워갈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바로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백성 아닌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건 상관없습니다. 믿는 우리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설피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야단을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사단'이라고 꾸중을 들었는데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헌신이라도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오늘 내가 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힘들어 보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여도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죽음 당한 어린 양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어린 양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서워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외칩니다. "산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려다오"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죽음 당한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를 차지하는 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다면 목숨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삽시다.